

# KOMSA 목포지사, 서남해 해양안전 '파수꾼' 발돋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단 인력 11% 해당 60명 근무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체계 강화  
스마트 안전시스템 도입 실효성 ↑  
유관기관 협력 합동 기동점검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목포지사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 조성을 목표로 서남해권의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4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에 따르면 공단은 어선 안전 점검부터 불법 개조 선박 단속, 친환경 선박 위험성 평가에 이르기까지 현장 중심의 밀착형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개소한 '목포사고조사센터'는 전라권역 해양안전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센터는 드론과 AI 기반 상담 시스템, 원격 검사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사고 원인 분석의 정밀도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을 받는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가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와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며 서남해권 해양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은 목포 지역 해양특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 제공>

미래 해양 환경 변화에 맞춘 '친환경 선박 안전관리'를 위해 목포지사는 최근 목포해수청의 40급 하이브리드 순찰선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주도하며 전기 추진 선박 운용 과정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등 선제적 안전 조치를 완료했다.

현장 밀착형 예방 활동 역시 쉬 없이 이어지고 있다. 봄 행락철과 농무기를 맞아 진도항 유도선 및 목포 북항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

동 기동 점검을 실시, 승선 인원 준수 여부와 구명설비 상태를 집중 점검했으며,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한 정밀 점검을 통해 방치 선박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한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예비 해기사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VR 기반 구조요청 및 탈출 체험 등 실감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재 목포지사는 공단 전체 인력의 약 11%에 해당하는 60여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서남권 해양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공단은 향후 여객선 공영제 사업 확대와 영암 어선구조지원센터 조성 등을 통해 서남해권 해양안전 정책의 중심축 역할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KOMSA 목포지사 관계자는 "해양 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신념으로 현장 구축구축을 살피고 있다"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과학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 “주민불편 신속 해결”...무안군 ‘민원매니저’ 도입

9월까지 시범 운영·팀장급 5명 배치  
건축 등 5개 분야 윈스톱 관리·조정

무안군은 여러 부서가 얽혀 처리가 까다로운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이 처리 전 과정을 책임지는 '민원매니저' 제도를 도입한다.

14일 무안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9월까지 복합민원의 접수부터 부서 간 협의·조정, 결과 안내까지 윈스톱으로 관리하는 민원매니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군은 이를 위해 경험이 풍부하고 조정 능력이 뛰어난 팀장급 공무원 5명을 민원매니저로 지정했으며, 운영 분야는 민원 수요가 많고 절차가 복잡한 ▲건축허가 ▲환경 ▲공장 설립 ▲특이민원 ▲기타 복합민원 등 5개 부문이다.

그동안 복합민원은 여러 부서의 검토가 동시에 이뤄지는 과정에서 협의가 지연돼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민원매니저는 이러한 부서 간 이견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민원인에게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은 이번 제도를 통해 민원인이 개별 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행정 내부의 칸막이를 낮춰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영인 민원지적과장은 "민원매니저 운영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며 "시범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윈스톱 민원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 진도군, 학교서 '별별 예술극장' 운영

7월까지 관내 초·중학교 공연  
뮤지컬·인형극·비보잉 등 다채

진도군이 지역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기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별별 예술극장' 운영에 나서며 문화 소외 지역의 갈증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14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조도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관내 초·중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별별 예술극장'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사전에 참여 학교를 모집한 결과 높은 신청률을 기록하며 현장의 뜨거운 기대를 모았다.

'별별 예술극장'은 지리적 여건상 대규모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기획됐으며, 공연은 뮤지컬, 인형극, 융복합 체험극, 비보잉, 케이팝 댄스 등 장르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진다.

특히 단순 관람형 공연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무대 위에서 함께 호흡하고 움직이는 '참여형'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으로, 학생들은 예술가들과 소통하며 무대를 완성해가는 과정을 통해 창의성과 문화 감수성을 키우게 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폭넓은 문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학교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진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 함평군, 태교·힐링 지원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내달 2일까지 매주 화요일 진행

함평군은 14일 "임산부와 예비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감성 중심의 태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함평군 보건소는 다음달 2일까지 매주 화요일 보건소 통합건강관리센터에서 총 4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건강교실은 임신 기간 중 필요한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직접 작품을 만드는 체험형 태교 위주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은 ▲편지나 돌돌이 도어벨 ▲마크라메 자개 모빌 ▲라탄 칸 바구니 만들기 등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전문 공예 활동이다. <사진>

참여자들은 공예 활동을 통해 태교와 힐링을 동시에 경험하며, 비슷한 상황의 임산부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기회를 갖는다.

군은 이번 교실이 단순한 교육을 넘어 임산부간의 자조 모임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임신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평=기영규 기자

## 해남군, 하절기 감염병 비상방역 가동

해남군이 하절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 증가에 대비해 이달부터 9월까지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하고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

14일 해남군에 따르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장관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하절기에는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집단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이에 군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집단환자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발생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감염병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주요 예방수칙으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먹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하지 않기 등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같은 음식을 섭취한 후 2명 이상에게 설사·구토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 김태성 신안군수 후보 캠프, 경로잔치서 쓰러진 60대 구조

어버이날 행사 중 주민 기도 막혀  
하임리히법·주민 협업 의식 회복

조국혁신당 김태성 신안군수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마을 경로잔치에서 기도가 막혀 의식을 잃은 어르신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14일 김태성 후보 캠프에 따르면 지난 9일 신안군 아해읍 송공리에서 열린 어버이날 기념 '효 잔치' 도중 주민 김모(68)씨가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김씨는 식사 중 기도가 막혀 얼굴이 창백해지며 의식을 잃은 위급한 상황이었으나, 때마침 같은 테이블에 있던 김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지체 없이 구조에 나섰다. <사진>

김 후보의 침착한 조율 아래 한 수행원이 즉각 하임리히법을 실시했고, 다른 수행원은 119에 신속히 신고 후 상황을 통제했으며, 다른 마을 주민까지 인공호흡 등 응급처치에 힘을 보탰다.



수분에 걸친 사투 끝에 김씨는 의식을 회복했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생명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김태성 후보는 "수행원들의 신속한 대처와 현장에 계셨던 분들의 헌신적인 협업 덕분에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어 다행스럽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신안군의 119 구급 체계와 의료복지 시스템을 더욱 촘촘히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성학 기자



2025 영암 중학생 해외역사문화 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 제공>

## 영암 모든 중학생 일본 역사·문화 탐방

384명 19일부터 3박4일 일정  
탐방·현지 대학생 교류 강화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이 지역 내 모든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본 현지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대규모 국외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4일 영암군미래교육재단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6월1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관내 11개 중학교와 2개 특수학교 3학년 학생 384명이 참여하는 일본 역사·문화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이번 체험학습은 오사카와 교토 지역에서 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은 영암 출신 왕인박사의 묘역을 비롯해 도시사대학교 내 운동주·정지용 시비 등 역사적 현장을 직접 살펴

며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현지 대학생과 함께하는 소그룹 자율 탐방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해 단순 관람 위주의 일정에서 벗어나 현지 청년들과 소통하며 국제적 감각을 키우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사업은 일부 학생 선발 방식이 아닌 학년 전체 학생에게 체험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재단은 이를 통해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학생들이 교실 밖 넓은 세상을 직접 경험하며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내실 있는 체험학습이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